

정책 하이라이트

1. EU의 전력시장 자유화 진행 상황

● 개요

- EU는 '97년 이후 전력시장 자유화를 추진해 왔는데, '04년 산업부문, '07년 7월 1일 가정부문까지 자유화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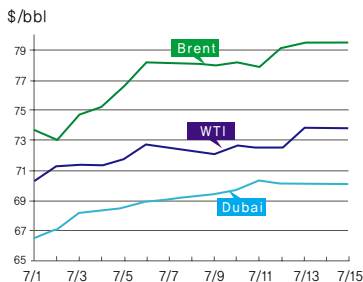
● 세부내용

- EU 전력시장의 자유화는 '96년 '전력자유화 지침'을 기반으로, '04년 7월 산업용(전체시장의 60%), '07년 7월 가정용까지 완전 자유화되었음.
 - '04년 7월 '에너지 시장 자유화 법규'를 채택함.
 - 가정용 전력의 자유화는 당초 '05년에서 '07년으로 2년간 지연된 것임.
 - EU 집행위원회 경쟁담당 크레스 집행위원은 '05년 6월부터 역내 '전력·가스시장의 실태조사' 실시와 시장집중, 수직통합 등 8개 이슈로 구분, 그 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07년 1월 발표함.
 - 25개 회원국의 다수가 발전과 송·배전을 분리하라는 '에너지시장 자유화 법규'를 어긴 것으로 나타남.
- ※ 전력공급망 독점이 경쟁체제의 도입을 막는 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음.

주요 내용

- 📌 정책 하이라이트 / 1
- 📌 해외에너지 정책/시장 동향 / 16
- 📌 국내외 정책연구 / 27
- 📌 연구원 동정 / 31

국제유가추이



평균가격(2007. 7. 1 ~ 7. 15)

WTI	Brent	Dubai
72.33	77.19	69.04



- 프랑스는 전력공사(EDF)가 발전과 공급을 독점한 가운데 초기 자유화를 반대하였으나, 자유화와 더불어 발전은 EDF(90%)와 기타사업자(10%), 계통운영은 RTE, 전력거래는 Powernext & Brokers, 배전은 EDF와 170개 사업자로 분리함.
- EU의 국가간 전력시장 통합은 '07년 프랑스와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5개국이 전력망 연결을 위한 MOU 체결로 시작됨.
 - 향후 전력망은 발틱 3국과 이베리아 반도의 포르투갈과 스페인으로 확대될 계획이며, 동유럽으로까지 확대를 계획 중임.
 - EU의 전력 공급망은 북아프리카와 중동으로까지 확대를 구상하고 있음.

● 시사점

- EU의 전력시장 통합은 향후 동북아의 전력시장 통합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전력망 연계에 따른 예비력 확보와 송전망 운영, 통합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Financial Times, 2007.6.29.), (Energy Business, 2007.6.8.)

2. 카타르 LNG수출 전략

● 개요

- 아시아 LNG 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판매자 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카타르는 최근 높은 LNG 수출가격을 설정하였으나 아시아 시장의 향후 전망을 고려할 때, 카타르의 LNG 가격전략이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세부내용

- LNG 수급 현황
 - 아시아 지역의 LNG시장은 수급불균형 상황이 전개되어 '06년 기점으로 판매자 시장으로 전환되었으며, 적어도 '11년까지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 판매자 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LNG 가격은 판매자 요구에 따라 S-Curve가 폐지되어

유가 연동성을 증가시킴.

• 카타르 LNG 상황

- 연간 4,800만 톤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는 카타르는 일부 물량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아시아 지역으로 전환하려고 함.

※ 카타르는 '97년부터 LNG 사업부분에 진출하여 '06년 수출용량 2,600만 톤에서 '11년 7,700만 톤으로 3배 확대할 계획임.

- '12~'13년까지 세계 LNG의 다수를 확보하고 있는 카타르는 가격 설정자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수출가격을 유가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카타르 LNG는 JCC(일본 수입유가) \$60을 기준으로 \$10.50~\$11.00 /MMBtu를 적용하였음.
- 반면에, 호주 North West Shelf LNG는 JCC \$60을 기준으로 \$8/MMBtu를 적용하였는데, 이는 시장에 보다 합리적 신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져 국제적 기준으로 활용됨.
- 일본 또한 장기계약으로 \$8~\$9.5/MMBtu를 고수하고 있음.

• 카타르의 LNG 수출전략

- 카타르의 전략은 QFLEX와 QMAX와 같은 대형 LNG 선박이 아태지역에 운영되기 전에

카타르 LNG 프로젝트 현황

프로젝트	트레인	시작년도	연간 생산량 (10억 m³)	계약	최근 계약사항 (연간 10억 m³)
Qatargas	1~3	'97~'98	12.9	일본, 스페인	
Qatargas II	4	'08	10.6	영국	일본 추부, '08~'12년 (1.6) 계획
	5	'08	10.6	영국	프랑스 및 멕시코로 전환가능(5)
Qatargas III	6	'09	10.6	미국	한국, '09년 (2.9) 계획
Qatargas IV	7	'10	10.6	미국	
Rasgas	1~2	'99	9.0	한국, 스페인	
Rasgas II	3	'04	6.4	인도	
	4	'05	6.4	인도, 한국	한국, '07년 (2.9)
	5	'07	6.4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대만	
Rasgas III	6	'08	10.6	미국	절반가량은 아시아로 전환될 계획
	7	'09	10.6	미국	

자료 : IEA, Natural Gas Market Review 2007

장기계약으로 높은 가격(\$10~\$11/MMBtu)에 가능한 많은 물량(연간 1,000~1,500만 톤)을 판매하는데 있음.

• 카타르의 LNG 수출전략의 장애요소

- 아시아 지역(한국, 일본, 대만)으로 전환 가능한 물량은 수입원의 다양화로 한계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지역으로 수출 가능한 물량은 연간 약 1,500~2,000만 톤으로 전망됨.
- 중국 및 인도의 경우, 적정가격에 대한 한계는 없다고 볼 수 있으나, 국영 전력회사는 \$3.50~\$3.75/MMBtu 가격 이상으로는 구매할 의사가 없으며, 중국정부가 설정한 가격은 \$5/MMBtu대임.
- 호주의 NWS의 \$8/MMBtu 가격은 아시아에서 가장 합리적인 계약으로 평가되어 신규 계약의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수입국에 있어서 미국 Henry Hub 가격이 가격설정에 중요한 참고가 되고 있으며, Henry Hub 가격은 대략 \$7~\$9/MMBtu 선을 유지할 것이며, '08~'09년에는 현 수준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카타르의 대안

- 만약 카타르가 아시아지역으로의 대규모 수출 물량을 확보하는데 실패한다면 첫째, Henry Hub 가격의 영향을 평가하고, 호주 NWS의 가격인 \$8~\$9/MMBtu를 반영하여 가격전략을 수정하는 것임.
- 둘째, '10년(기존 장기계약의 만료시점)에 구매자가 선회하여 높은 가격을 지불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지금의 높은 수출가격을 유지하는 것임.

● 시사점

- 아태 지역에서의 LNG 프로젝트 지연 가능성 및 수급 상황들을 면밀히 관찰하여 카타르를 비롯하여 안정적인 LNG 도입선 및 경제적인 공급 물량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LNG Journal, 2007.6)

3. 일본, 전력시장 소매자유화 논의

● 개요

- 일본 경제산업성(METI)의 자문기관인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전기사업분과회 제도개혁 실무그룹이 6월 28일 첫 회의를 개최하여 가정 부문을 포함한 전력시장 소매자유화 범위확대에 대해 논의함.

● 세부내용

- 실무그룹은 현행 제도 하에서 전면자유화에 돌입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피력함.
 - 현재 수요자의 선택 폭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 제도 하에서는 경쟁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결론을 공표함.
- METI는 전면자유화의 비용효과분석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함(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15년도를 기점으로 효율화에 따른 편익 및 수반되는 비용 계산).
 - 첫째, 현행 부분자유화를 유지한 채로 '10년부터 경쟁정책을 강화한 경우는 1조 1,741억 엔의 높은 정책효과가 발생함.
 - 둘째, 전면자유화만을 실시할 경우는 비용이 편익을 6,794억~8,063억 엔 상회함.
 - 셋째, 전면자유화와 경쟁정책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졌을 경우는 편익이 4,464억~6,894억 엔에 그침.
- 수요자 선택폭의 확보상황에 대해서는 수요자 대상 설문조사에 의거하여 분석함.
 - PPS(특정규모전기사업자)의 낮은 점유비, 전력회사 구역 외 공급정지 등으로 다른 전기사업자로 변경한 수요자는 20% 정도이며, 해당 지역 전력회사의 요금인하 등으로 수요자가 기존의 계약에 만족하고 있음.
 - 해당 지역 전력회사 이외의 사업자에 관한 정보제공이 충분하지 못해 타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선택 대상자가 되지 못하고 있음.
 - PPS의 전원확충 등 도매전력시장의 활성화에서 선택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상에서는 선택폭의 확보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림.



- 전면자유화 연기는 확정적이며 가을 이후에는 탁송요금의 인하, 안정공급을 위한 송전설비의 증강 등 현행제도의 개선으로 논의의 초점이 이동할 것임.
- 실무그룹은 7월 11일에 제2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견해를 반영한 보고서를 정리하여 7월 30일에 제출할 예정임.

● 시사점

- 지난 4월에 자원에너지청 전기사업분과회는 자원확보경쟁의 심화, PPS제도의 위축, 온난화대책 등을 이유로 전면자유화에 소극적이었음.
- 전력시장의 자유화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각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속도와 방법을 조절하면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일본 정부의 방침임.

(日本 電氣新聞, 2007.6.29)

4. 캄보디아 해상유전 개발

● 개요

- 최근 캄보디아의 해상유전 개발권에 대한 미국과 한국, 중국 등 9개 국가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며, 캄보디아 역시 개발권 및 원유 판매 수익을 경제개발의 재원으로 이용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음.

● 세부내용

- 캄보디아 정부는 최근 남서부 연해 유전을 6개 광구로 나누고 9개 국가가 공동 개발하도록 결정했다고 발표하였음.
- 6개 광구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곳은 Chevron이 이끌고 GS Caltex가 참여하고 있는 A광구임.
 - 매장량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캄보디아 석유관리국에 따르면 현재 A광구 원유 추정 매장량은 약 7억 배럴, 가스는 850억~1,416억 m³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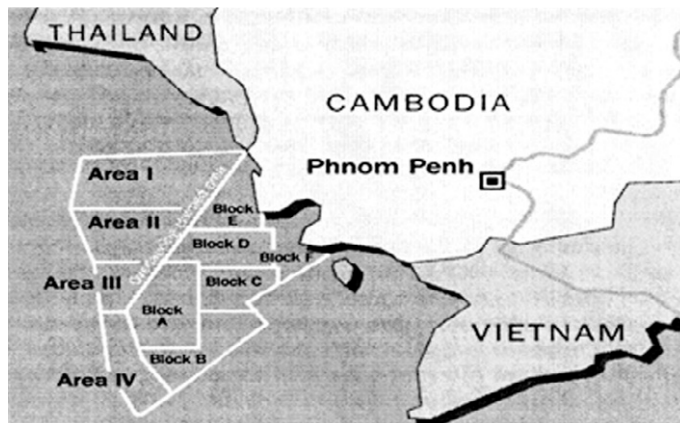
- Chevron은 '05년 말 A광구에서 시추를 개시하여 총 9개의 유정을 발견하였고 빠르면 '08년부터 원유 및 가스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 A광구의 경제성이 입증되면 향후 20년간 12만 b/d가량 생산이 가능할 것임.
- 그러나 캄보디아 정부의 석유판매 수익 유용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태국과의 Overlapping Claims Area(OCA) 문제 등으로 유전 개발이 순탄치 않음.
- 캄보디아 해상유전 개발 붐으로 캄보디아-태국간 OCA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 ※ 캄보디아, 태국은 Gulf of Thailand에 위치한 27,000 km² 규모의 지역에 대해 각자의 소유권을 주장해 왔으며, 양국 모두 서로 다른 기업에 개발권을 준 상태임.

Overlapping Claims Area 현황

지역(캄보디아/태국)	캄보디아	태국
Area I / Blocks 5&6	ConocoPhillips, 66.7% Idemitsu, 33.3%	Chevron, 50% Idemitsu, 50%
Area II / Blocks 7, 8&9	ConocoPhillips, 66.7% Idemitsu, 33.3%	BG, 50% Chevron, 50%
Area III / Blocks 10&11	Enterprise Oil(Shell), 50% BHP Billiton, 50%	Chevron, 60% Moeco, 40%
Area IV / Blocks 12&13	BHP Billiton, 50% Inpex, 50%	Chevron, 80% Moeco, 20%

- 그러나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동남아시아 최빈국이자 국내 전력 생산을 수입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캄보디아로서는 유전 개발을 경제개발의 큰 기회로 여기고 있음.
- 캄보디아 국내 발전용량은 300MW에 불과하며, 베트남에 대한

캄보디아 해상광구 현황



전력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음.

- 현재 유가 기준(\$60/bbl)으로 보면 석유 수입은 연간 \$150억으로 추정되며, 이는 현재 캄보디아 예산의 3배에 달하는 액수임.

(Energy Economist, 2007.6)

5. EU의 에너지 관련 대 중앙아시아 전략

● 개요

- EU 집행위원회는 브뤼셀에서 6월 21~22일 양일간 열린 이사회에서 EU의 대 중앙아시아 전략(Central Asia-Strategy for a New Partnership)을 채택하였음.

● 세부내용

- 이는 EU의 대 중앙아시아 관계를 조율하는 큰 틀로서 에너지 및 수송, 인권, 민주주의, 경제개발, 교육 등 제 분야를 다루고 있음.
 - EU의 대 중앙아시아 전략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하나의 지역으로 묶어 접근하되, 실제적으로는 각 국가에 맞춰 실행될 예정임.
 - '08년 중반 경에 첫 번째 진행보고서가 EU 집행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임.
 - ※ EU의 전략 내에 언급되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 공화국,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으로 한정되어 있음.
- EU의 대 중앙아시아 전략 중 에너지 부문은 'Strengthening energy and transport links'에서 다루고 있음.
 - EU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고 선언하며, 에너지 수송로 · 수급구조 ·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주요 목표로 언급하고 있음.
 - 중앙아 국가들과의 주요 협력부문으로는 석유, 가스 및 전력, 수자원 관리를 언급하였으며, 특히 수력발전 및 배전을 핵심적 사항으로 지적하였음.
 - 에너지 자원 중에서는 중앙아시아산 가스의 수입을 EU의 주요 관심사로 표명함.

- EU는 대 중앙아시아 전략을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에너지 현장 및 에너지 관련 양자 간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실행할 계획임.
- 구체적으로는 신규 유전 및 가스전 탐사와 수력발전, 기존 에너지 인프라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며, 추가적인 수송관 건설 및 에너지 수송망 개발을 지원하여 중앙아시아 에너지 생산자들의 판로 확대를 유도할 계획임.

● 시사점

- EU의 대 중앙아시아 전략 중 특기할 만한 것은 수력발전 지원으로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내 에너지수요를 수력발전으로 대체하고 화석연료 특히 가스 수출의 대 EU 공급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여짐.
- 에너지 현장에 기초한 전략실행과 카스피 해로부터의 에너지 수송관 및 수송망 개발은 이에 반대하는 러시아와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으나, EU-러시아 간 협상에 따라 중앙아시아 에너지자원 개발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07.6.23)

5. 서부텍사스중질유(WTI) - 국제기준유가 적정성 논란

● 개요

- 캐나다의 원유 생산 및 미국으로의 원유 수출 증가로 미국의 주요 원유 수입 경로가 멕시코 만에서 캐나다와 인접한 주로 이동됨에 따라 WTI 가격이 미국 시장거래 기준유가로서의 가치가 퇴색되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WTI는 미국 오클라호마 주의 Cushing 지역을 인도지점으로 가격이 형성되는데, 캐나다로부터의 원유유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미국 시장을 반영하는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었다고 지적됨.

● 세부내용

- 올해 4월 5일부터 서부 텍사스 중질유(WTI)가 품질이 낮은 두바이유(Dubai)보다 싼 가격으로 거래되기 시작하면서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기준유종으로서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캐나다의 원유공급에 있음.
 - 캐나다는 미국에 있어 가장 큰 에너지 공급원 중 하나이며 미국과의 정치적 관계나 지리적 위치가 매우 밀접하여 수입 과정에서 마찰이나 불확실성이 없는 안정적인 공급원이 되고 있음.
- 오일샌드를 포함한 캐나다 석유의 확인매장량은 1,750억 배럴로 사우디에 이어 두 번째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15년까지 평균적으로 4.5~4.8백만 b/d를 생산할 것으로 기대됨.
 - 오일샌드를 이용한 석유생산은 '15년까지 평균적으로 250만 b/d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캐나다 원유의 미국 수출은 '00년에 180만 b/d이며, '06년 수출은 27% 상승한 평균 230만 b/d에 이름.
- 미국 정유사들은 캐나다산 원유수입의 확대를 위해 정제시설을 확장하고 있으며, 미국 내를 통과하는 두 송유관의 일부를 확장하였음.
 - 엔브릿지의 Spearhead와 엑슨모빌의 Pegasus 송유관을 확장하여 각각 시카고에서 Cushing 및 Patoka에서 Nederland를 연결하였으며, 용량 확장을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음.
 - TransCanada와 BP는 '09년부터 각각 Hardisty에서 Cushing, Cushing에서 시카고까지의 송유관을 운영할 예정임.
 - BP는 또한 10만 b/d를 '09년 중순에 Cushing에서 시카고 라인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시사점

- 미국에서 거래되는 유종들은 모두 Cushing에서 결정된 WTI 가격에 연동되어 있으나, WTI 가격이 미국 전체 시장의 수요·공급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 유가로서의 기능

을 상실하고 있다고 전함.

- 캐나다로부터의 원유 유입과 Valero사의 Mackee 정제시설 가동중단으로 Cushing 지역의 WTI 거래가 정체되면서 실제적인 국제 유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낮은 가격대에 머물렀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함.

(Energy Economist, 2007.6)

6. 주요 에너지 기업의 아태지역 프로젝트 현황

● 개요

- 아태지역의 대규모 천연가스 매장량과 유리한 투자환경 및 규제제도는 주요 에너지기업의 프로젝트 개발을 촉진하고 있음.
- Shell에 따르면 아태지역의 생산비는 배럴당 \$3.35로 가장 저렴한 수준이며, ConocoPhillips에 의하면 아태지역은 심해 생산설비 건설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평가됨.

● 세부내용

- Chevron 투자현황
 - Chevron의 아태지역 석유·가스 생산량은 동지역 총생산량의 35%를 차지하며, '06년 생산량은 60만 boe/d(석유환산배럴)를 기록하였으며, 올해에는 70만 boe/d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07년 이후 생산량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신규 프로젝트로부터의 생산이 늦어도 '12년부터 시작됨에 따라 전반적인 생산량 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호주 북서 해상지역 Gorgon LNG 프로젝트를 통해 '10년부터 연간 천만 톤을 생산할 예정이며, Greater Gorgon 지역에 대규모 매장량이 발견되면 ExxonMobil, Shell과 함께 프로젝트를 확장할 계획임.

아태지역 상류부문 주요 프로젝트 현황

회사	프로젝트	개시일	지분(%)	천b/d	백만ft ³ /d	백만톤/yr
Chevron	호주, Gorgon LNG	2011+	50.0			10.0
ExxonMobil	인도네시아, Cepu	2010+	45.0	165	20	
Shell	호주, Pluto	2010	34.0			6.0
Total	인도네시아, Sisi Nubi	2008	47.9	70		
ConocoPhillips	중국, Penglai 2	2007	49.0	72		
BP	인도네시아, Tangguh	2008+	37.0			7.6

• Shell 투자현황

- 호주 North West Shelf LNG Venture의 지분 34% 확보를 통해 동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Pluto 가스전에서 연간 500만~700만 톤을 생산할 전망이다.
- 브루나이 및 말레이시아의 기존시설을 확장할 계획임.

• ConocoPhillips 투자현황

- 아태지역에서의 생산량은 20만 boe/d에 이르며, 이는 ConocoPhillips 총생산량의 10%를 차지함.
- 호주에서 LNG 사업의 확장을 고려하고 있으며, 연간 370만 톤 규모의 Darwin LNG 프로젝트를 천만 톤으로 증대시킬 계획임.
- 주요 에너지 기업 중 중국 상류부문에 가장 큰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Bohai만의 Penglai 석유 프로젝트의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음.
- 동 프로젝트의 2단계에서는 '10년까지 총 생산량을 현재의 3배인 13만 b/d로 증대시킬 계획임.

• ExxonMobil

- 아태지역에서의 '06년 석유 생산량은 14.1만 b/d를 기록하여 총 생산량의 5%를 차지하였으며, 천연가스는 총 생산량의 13%인 103억 m³를 기록하였음.
- '10년 이후 가동될 인도네시아 Cepu 프로젝트를 통해 석유 16.5만 b/d를, 천연가스 일일 100만 m³를 생산할 계획임.

- BP

- 연간 760만 톤 규모의 인도네시아 Tangguh 프로젝트의 지분 37.2%를 보유하고 있음.
- 동 프로젝트를 통해 '08년 4/4분기에 첫 LNG 카고를 중국 국영기업 CNOOC의 후젠 LNG 인수기지로 공급할 계획임.

- Total

- 인도네시아와 미얀마, 태국, 브루나이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아시아 매장량이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으로 인도네시아 Mahakam 가스전의 생산량 일일 7,400만^m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 \$15억의 투자증대를 계획함.

(Argus Asia Gas & Power, 2007.6)

7. 중남미 국가의 에너지 부족 심화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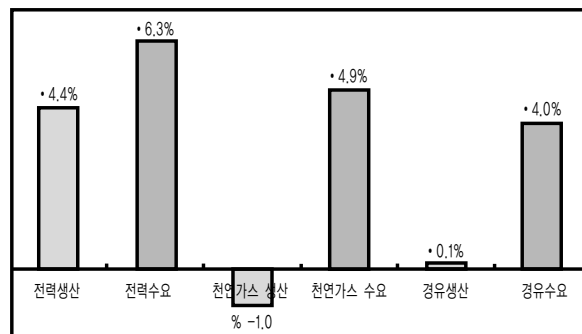
- 중남미에는 베네수엘라나 브라질 등과 같은 에너지 부국들이 있는 반면, 일부 국가는 자원 부족 또는 매장량의 감소로 인하여 에너지 부족상태에 직면하고 있음.

● 세부내용

- 아르헨티나

- 최근 경제성장으로 인한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증가와 정부의 에너지가격 동결로 인한 투자 및 생산 감소, 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증가 등으로 에너지 부족상태가 발생하였음.

아르헨티나 에너지수요 및 공급 현황('07년 1/4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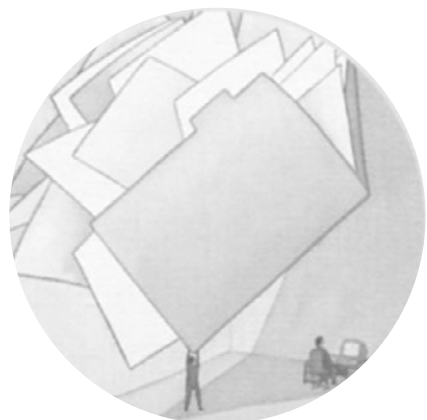
- 현재 정부는 가정부문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주요 제조업체에 대해 전기와 천연가스의 제한공급을 실시하며, 이로 인하여 6월 한 달간 약 \$3억 3,400만의 손실을 가져옴.
- 칠레
 - 유일한 천연가스 공급국인 아르헨티나의 자국 내 전력수요 급증으로 천연가스 수입량이 감소하여 칠레 또한 에너지 부족사태에 처해 있음.
 - 칠레 정부는 전력사정을 극복하기 위해 LNG 플랜트 건설과 에너지 수입원 다변화 모색,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확대하고 있음.
- 니카라과
 - 유일한 에너지 공급국인 과테말라의 공급 감소와 이상기온에 의한 가뭄 등을 원인으로 약 3년간 에너지 부족사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 자국 내 주요 발전소 정비로 발전이 중지되어 사태가 더욱 악화됨.
 - 자국 전력수요의 35%인 170MW가 부족한 상태임.
 - 현재 수도 마나과는 일일 12시간씩 단전 상태에 있으며, 정부는 일일 노동시간을 2시간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중임.
- 에콰도르
 - 에콰도르 정부는 에너지 분야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구상 중임.
 - 최근 10년간 에너지부문에 대한 정부투자는 민간투자보다 약 20% 낮은 수준임.
 - 현재 에콰도르의 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위하여 정부는 인접국가로부터 전력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같은 에너지 수입으로 인한 국가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정부는 석유산업 부문에 '07년부터 '10년까지 약 \$28억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함.
- 멕시코
 - 국가 재정수입의 40%를 국영석유회사 Pemex에 의존하고 있는 멕시코는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Pemex는 멕시코 내 최대유전 Catavilla의 올해 생산량이 '06년 대비 약 15%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 멕시코 정부는 현재 에탄올의 사용을 확대 중이며, 에너지 수입으로 인한 자금유출을 줄이기 위해 기술개발, 석유의 탐사 및 생산에 대한 투자확대가 시급한 상태임.

● 시사점

- 중남미 국가의 에너지 부족현상으로 인해 역외 에너지수입이 증대되어 전세계 에너지 수급 및 국제유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동 지역의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 및 수요 추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

(adnmundo, 2007.7.4)



해외에너지 정책/시장 동향



베네수엘라, 유전 국유화 추진

- 베네수엘라 정부는 외국 기업들에게 제시한 오리노코 유전 지분양도에 대한 결과를 발표함.
 - 현재 동 사업을 하고 있는 6개 정유회사 중 Conoco Phillips와 ExxonMobil이 제시안을 거부하였으며, 최종적으로 Chevron과 BP, Total, Statoil만이 PDVSA와 공동으로 유전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함.
 - 두 회사는 보상조건의 불공정성과 지분 축소에 대한 부정적 입장으로 베네수엘라 정부의 제안을 거부하였음.
 - 이번 조치로 과거 39%였던 PDVSA 소유 지분은 현재 약 78%에 이름.
- Conoco Phillips와 ExxonMobil의 제안 거부로 인해 현재 미국은 두 회사의 원유 수입량 감소를 우려하고 있으나 러시아와 브라질 등은 PDVSA와 공동으로 사업개발 참여를 원함.
 - Conoco Phillips가 베네수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원유는 회사 전체 물량의 4%를 차지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국제원유시장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 그러나 장기적으로, PDVSA가 주도적으로 개발할 경우 베네수엘라의 원유생산 능력이 더욱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음.

(Prensa Latina, 2007.6.26), (EFE, 2007.6.29)

아르헨티나 가스 공급 차질

- 최근 아르헨티나의 강추위로 인하여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자국 내 및 對칠레 가스 수출에 문제를 야기함.

- 지난 26일 원자력 발전소 중 하나인 Embalse의 점검으로 인해 Atucha가 급격히 늘어난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작동이 멈추는 위기를 맞았으나 4일 후 재가동됨.
- 또한 아르헨티나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는 칠레는 지난 28일 하루 동안 가스 공급이 중단되는 긴급상황 후에 재공급받기 시작함.
- ※ 칠레의 일일 천연가스 수요량은 150만~180만㎥임.

- 아르헨티나와 칠레 정부는 아르헨티나의 에너지 수요 급증으로 인한 긴급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 및 단체들에게 에너지 절약을 촉구함.
- 에너지 부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는 LNG 도입을 추진 중이며, 칠레 정부 또한 아르헨티나의 가스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해저가스유전 탐사 등의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 중임.

(Reuters, 2007.5.28), (AFP, 2007.5.31)



원자력, 지구온난화 해결책으로 미흡

- 영국의 옥스퍼드리서치그룹(ORG)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으로 세계 전력수요를 충당하려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핵무기 확산에 따라 국제안보가 위협받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함.
- ORG는 현재 세계 전력수요의 16%를 담당하는 원자력이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에 기여하려면 '75년까지 세계 전력수요의 3분의 1을 공급해야할 것이라고 분석함.
- 이는 향후 70년간 매 월 원자력발전소 4곳이 신축되어야 함.
- 전력의 78%를 원자력에서 얻는 프랑스조차 이러한 건설속도에 근접하지 못했고, 원자력에 개발에 따른 핵무기 확산 가능성은 커질 수 있음을 지적함.
- 세계적인 원자력 붐은 저품위 우라늄 개발로 이어져 채굴 및 정제 과정에서 더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야기할 수 있으며, IAEA의 민간 원자력에 대한 통제 및 감시능력도 한계에 이를 것임.



- ORG는 동 보고서에서 원자력이 이산화탄소배출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원자력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힘.

- 원전 찬성론자들은 원자력으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수 천년동안 남아있을 방사성폐기물의 유독성을 주목하고 있음.

(Reuters, 2007.6.29)



멕시코 Cantarell 유전 생산량 감소

- 멕시코 Cantarell 유전의 5월 원유 생산량은 전월대비 2만 b/d 감소한 158만 b/d를 기록함.
 - Cantarell 유전은 멕시코 GDP의 30%를 담당하며, 자국 내 원유 총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대형유전이지만 지난해부터 원유생산이 감소되기 시작하여 올해 5월 동 유전의 총생산량 점유율은 51% 수준임.
- 이러한 원유생산 감소로 멕시코 석유공사(Pemex)는 '06년 일일 목표 생산량 352만 배럴을 달성하지 못하여 정부로부터 \$2억9,500만 상당의 페널티를 부과 받은 것으로 전해짐.
 - 재정 수입의 40%를 Pemex에 의존해 온 멕시코 정부는 재정파탄을 막기 위해, 6년간 세금을 단계적으로 30%까지 늘리고 기업체에 대한 면세 혜택을 감소해가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

(Reuters, 2007.6.26) (La Jornada, 2007.6.29)



베네수엘라, 러시아 및 이란과 에너지협력 논의

-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은 6월 28일~30일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에너지와 군사 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함.
 - 차베스 대통령은 러시아제 잠수함 구매와 함께 가스프롬의 베네수엘라 에너지 분야 투자를 희망하며, 또한 가스 OPEC 창설에 대한 동의를 구함.

- 현재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의 Lukoil, 가스프롬과 함께 가스관 건설계획 및 개발·탐사 부문의 공동사업을 구상중임.
- 또한 차베스 대통령은 이란을 방문하여 에너지 부문 조약을 체결함.
 - 양국은 이란의 Petropars와 베네수엘라의 PDVSA가 제3국에서 수행할 공동 프로젝트와 Platform 및 해저송유관, 석유화학시설 건설협력, 對이란 석유제품 수출 등을 합의하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함.
 - 산업협력 강화를 위한 석유화학시설 공동건설로 이란 남부에 연 생산량 100만 톤급 메탄올공장을 건설하며, 이란의 Petrochemical이 총 지분의 51%, 나머지는 베네수엘라 Chemical이 보유하게 될 것임.

(AP, 2007.7.3)



브라질, EU와 정치·경제 파트너십 협정 체결

- 브라질과 EU는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에 서명함.
 - 이번 협정은 양자 간의 경제교류와 에너지, 기후변화, 과학, 환경, 문화, 정치적 유대 강화에 기여할 것임.
 - 이번 협정으로 인하여 EU는 BRICs 4개국과 모두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게 됨.
- EU와 브라질 양측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서 브라질은 유럽에서만 연간 \$800억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음.
 - 포르투갈 Galp는 '10년까지 30억 유로를 투자하여 브라질의 Petrobras와 연간 60만 톤의 사탕수수 정제설비를 갖춘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바이오연료를 생산하기로 함.

(AFP, 2007.7.4)



미얀마, 송전망 확장 계획 발표

- 미얀마는 최근 Shan주에 완공된 Shweli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될 전력을 전국으로 공급하기 위한 송전망을 확장할 예정이다.
 - 총 1,600km 규모로 확장될 이번 송전망은 미얀마 주요 7개주(Mandalay, Magway, Sagaing, Shan, Kachin, Chin, Kayin)를 연결하게 될 것임.
 - 이 중 Shweli-Mandalay 구간을 잇는 356km 길이의 송전망은 미얀마 국영기업 Myanmar Electric Power Enterprise와 중국의 Sichuan Machinery and Equipment Import and Export Co Ltd.가 맡고 있음.
- 발전소 건설과 송전망 확장 등 미얀마의 전력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전력난을 겪고 있으며, 수도 양곤에서도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음.
 - 미얀마의 송전망은 '88~'89년 17,172km에서 '05~06년 33,059km로 약 1.9배가 증가하였고, 동기간에 전력이 보급된 마을 수는 473개에서 1,267개로 증가하였음.

(XI, 2007.7.5)



독일, 에너지효율 매년 3% 개선 목표 수립

- 독일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에너지 효율을 매년 3%씩 개선한다는 목표를 발표하였음.
 - 독일 메르켈 총리는 에너지 관련 정치인과 관료, 산업계 지도자들이 모인 '에너지 회담'에서 기후변화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며,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독일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연료와 난방용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을 '20년까지 매년 3%씩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90년 수준과 비교하여 '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할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힘.

- 이에 대해 독일 에너지업계는 온실가스 배출 40% 감축목표는 비현실적이며, 25% 정도가 실현 가능한 수준이라고 언급하였음.

(AP, 2007.7.3)



유럽 천연가스 수요의 12% 알제리에 의존

- 알제리 에너지광물부는 유럽의 천연가스 수요의 12%를 알제리가 공급하고 있다고 밝힘.
- 알제리와 유럽은 공동프로젝트를 통하여 에너지안보와 지중해유럽시장 구축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분야 협력관계를 맺고 있음.
 - 알제리는 소나트라를 통하여 유럽 가스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를 모색하고 있음.
- 현재 이탈리아, 스페인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을 운영 중이며, 이 두 나라는 다른 3개의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임.
 - ① 알제리-이탈리아 파이프라인, '12년 운영예정 ② 알제리-스페인 파이프라인, '09년 운영예정 ③ 나이지리아-알제리를 통해 나이지리아산 가스를 운송하는 파이프라인, '15년 운영예정

(Moheet, 2007.6.25)



사우디, 가스부문 개발 계획

- 사우디는 최대유전지대인 가와르 유전에서 100km 떨어진 카란 가스전의 가동을 '11년 말에 개시할 예정임.
 - 카란전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약 283억 m³이며, 향후 일일 2,800만 m³의 가스 생산이 가능할 전망이다.
- 사우디는 가스개발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1.36조 m³ 추가매장량을 확보함으로써 6.8조 m³의 가스매장량을 보유하게 됨.

- 아람코가 수행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향후 5년간 사우디의 가스매장량을 20% 증대시킬 것으로 보임.
- 사우디는 발전과 담수화, 석유정제시설 확대 등으로 가스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개발이 필요한 상황임.

(Ameinfo, 2007.6.23)



EDF, 카타르와 LNG수송 계약 체결

- EDF와 카타르 RasGas는 연간 약 45억m³(LNG 340만톤)의 LNG 수송 계약에 합의하였음.
- 동 계약은 EDF의 자회사인 EDF Trading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계약기간은 4년 6개월임.
- LNG는 RasGas의 액화공장에서 벨기에 Zeebrugge 터미널로 운송될 예정임.
- RasGas는 동 계약으로 시장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북서 유럽시장에 진출하게 됨.
- EDF는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Edison을 통해 RasGas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계약으로 LNG부문의 입지를 강화하게 되었음.

(LesEchos, 2007.6.28)



프랑스 GRTgaz, 가스관망 개발계획

- GRTgaz는 지난해 '07년~'16년 동안 가스관망 개발에 최소한 32억 유로의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37억~57억 유로로 상향 조정함.
- 이는 수직통합기업에서 수송망사업을 분리되어야 한다는 EU 집행위원회의 주장에 대처되나, GRTgaz는 수직통합기업 체제에서 모범적으로 수송망을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함.
- 동 계획은 프랑스의 배관설비에 대한 투자를 통해 천연가스 수송 능력을 확대하고, 소비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

● 동 계획은 원활한 가스 거래와 공급물량 확보, 시장 자유화 활성을 위한 GRTgaz의 전망과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을 제시함.

- 프랑스 다섯 개 지역에 LNG 인수기지 확대 및 신축하고 북부는 벨기에, 남부는 스페인과 연결하는 망 확대

- '07년~'16년 동안 프랑스의 천연가스의 수요증가율은 연평균 1.8%로 예상되며,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연간 천연가스 소비량은 세 배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Reuters, 2007.6.25)



스위스, '08년부터 탄소세 도입

● 스위스 연방정부는 교토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08년 1월 1일부터 수입 화석연료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

- 탄소세는 난방용 석유 1ℓ 당 \$0.25(0.3 스위스 프랑), 가스 1m³당 \$0.2(0.25 스위스 프랑)가 부과될 예정임.

● 스위스는 '06년 교토협약에서 정한 감축 목표인 6%를 달성하지 못하고 4.5% 감축에 그쳤으며, 이에 스위스 연방정부와 의회가 탄소세 도입에 합의하였음.

- 교토협약에 따르면, 스위스는 '12년까지 탄소 배출량 8% 감축 의무가 있음.

● 이산화탄소배출 감축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지 않을 경우, 탄소세는 '09년, '10년에 단계적으로 인상될 것임.

(Xl, 2007.6.29)



앙골라, 자국 내 천연가스 탐사 승인

● 앙골라 의회는 정부가 'Angola LNG'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가스 탐사와 개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음.

- 이에 따라 앙골라 정부는 가스탐사 기업에 제공될 감세 및 세금 면제 등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임.
- Angola LNG 프로젝트는 '02년에 개시된 프로젝트로 이미 발견된 유전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상업화하는 대규모 사업임.
 - 동 프로젝트를 통해 건설될 LNG 트레인 생산규모는 연간 5백만 톤임.
 - 이 프로젝트에는 앙골라 국영석유기업 Sonangol(22.8%)과 Chevron(36.4%), ExxonMobil(13.6%), Total(13.6%), BP(13.6%)가 참여하고 있음.
- 앙골라 의회의 이번 승인에는 Angola LNG 프로젝트로 인정되는 Quiluma와 Enguia-North, Atum, Polvi 4개 지역에서의 가스 경제성 평가와 탐사, 생산에 대한 승인도 포함됨.

(XI, 2007.6.25), (www.angolalng.com)



EU, 바이오연료 토론회 개최

- EU 집행위원회는 7월 5일~6일에 걸쳐 바이오연료 부문의 관계자들과 바이오연료 보급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 EU 집행위원회장과 브라질 대통령, 포르투갈 수상, EU 위원, NGO 대표들이 참석하여 바이오연료의 생산과 이용, 교역을 위한 전략을 모색함.
 - 동 토론회는 ①바이오연료 이용 확대 ②국제교역 확대 ③연구 활성화 ④환경오염과 바이오연료의 편익 ⑤개발도상국에서의 바이오연료에 대한 주제로 논의가 진행됨.
 - EU는 바이오연료의 이점으로 석유의존도 감소에 따른 에너지안보 강화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고용창출 등을 강조함.
- '07년 3월에 채택된 EU의 에너지 정책은 가솔린과 디젤의 대체연료로서 바이오연료의 생산과 이용을 촉진하고, '20년까지 바이오연료 소비비율을 최소 10%로 확보하는 것임.

(Europétrole, 2007.7.3)



노르웨이 Norsk Hydro와 인도 ONGC, 인도 유전개발 추진

- 노르웨이 Norsk Hydro와 인도 국영 ONGC는 2일 인도 동부 및 서부의 심해 유전개발을 위한 협력에 합의했음.
- Norsk Hydro는 ONGC가 보유한 Vasai East 유전의 개발을 위한 기술 제공의 대가로 \$700만을 지불받을 예정임.
- 또한 Norsk Hydro는 ONGC가 보유한 Krishna-Godavari Basin 지역의 KG-DWN-98/2 광구에 대해 \$2,600만을 투자하는 대신 지분 10%를 인수하기로 합의했음.
- ONGC는 이 광구 외에도 보유하고 있는 32개 광구 중 심해광구 26개에 대해서도 Norsk Hydro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힘.

(Reuters, 2007.7.2)



주간 국제유가 동향

- 7월 첫째 주(7/2~7/6), 국제유가는 미국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미국의 휘발유 수급이 불안정한 가운데 나이지리아 내정 불안 소식과 북해 유전 정비 계획발표로 상승세를 이어감.
- 미국 정제가동률은 전주대비 0.6% Point 상승한 90.0%를 기록하였으나 평년과 비교하여 가동률 수준이 부진하여 석유제품 수급 불안은 지속됨.
- Kansas 소재 Coffeyville 정제시설(10.8만b/d)이 홍수로 인해 침수되어 생산과 업무가 전면 중단되었으며 가동재개 일정은 불투명함.
- 4일 미국 독립기념일 휴일에 수송수요가 최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휘발유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북해 유전시설의 여름철 정비 계획 발표로 8월 이후 원유공급에 일부 차질이 예상됨.
- 나이지리아에서는 무장괴한들의 석유시설 습격과 납치사태가 재발하였으며 반군세력의 활동 재개 소식으로 지정학적 불안을 가중시킴.

- 이란의 연료배급제에 따른 내정 불안도 지정학적 불안 요소로 작용함.
- 7월 첫째 주 Nymex 원유선물 가격은 휘발유 최대 수요기인 미국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정제 시설 가동중단으로 수급 불안이 가중된 가운데 심리적 저항선인 \$70을 넘어서면서 기술적 매수 유지로 상승세를 나타냄.
 - 당분간 미국 금리 동결이 전망과 비농업부문 고용증가 발표도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를 부추김.
-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7월 6일 발표한 7월 3일 기준 Nymex의 대형 투기자금에 의한 원유(WTI) 선물거래 순매수 규모는 전주대비 0.4% 감소한 67.16백만 배럴을 기록하였음.
 - Nymex-WTI 최근월물 가격은 6월 26일 기준 \$67.77로 전주대비 1.9% 하락하였음.

(주간 국제유가 및 시장 동향, 126호)



국내외 정책연구

1. '07 Global Energy Survey

● 개요

- The World Energy Council(WEC)과 Korn/Ferry International은 세계 주요 에너지 기업의 CEO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수급과 기후변화, 국제정세 등에 관한 국제 에너지 이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세부내용

- 에너지 수요
 -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응답자 90%는 세계 1차 에너지 수요는 향후 5년간 중국이 견인할 것으로 봄.
 - ※ IEA는 화석연료가 '04년에서 '30년 동안 83% 증가할 것이며, 이 중 30%는 중국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함.
- 에너지 가격
 - 응답자 65%는 국제유가는 향후 5년간 배럴당 \$60~\$80 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함.
 - 응답자 80%는 중기간에 석탄 수급은 안정적이며, 향후 5년간 톤당\$50~\$60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에너지구성에서의 석탄비중이 커질 것으로 전망함.
 - 응답자 대부분은 향후 5년간 북미의 천연가스 가격은 MMBtu당 \$10~\$15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 대부분은 향후 5년간 전력가격이 크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응답자 60%는 개발도상국의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를 주시해야 한다고 밝힘.

• 에너지 공급

- 응답자 대부분은 중기간의 심각한 에너지 공급부족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봄.
- 또한 응답자 대부분은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향후 10년간 1~1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봄.
- 응답자 절반은 석탄이 전력수급의 안정에 가장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함.
- 응답자 60%는 바이오 연료와 같은 신재생에너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전체 에너지 구성에서의 비중은 여전히 작을 것으로 봄.

• 기후변화

- 응답자 대부분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관한 국제협약이 가까운 시기에 체결되지 않을 것으로 봄.
- 응답자 90%는 환경적 고려요소는 단기에 산업부문에 영향을 줄 것이며, 장래 투자를 비롯한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함.
- 응답자 절반이상은 친환경에너지 사용확대의 장벽으로 기술 부족을 언급하였음.

• 국제정세

- 응답자 90% 이상은 국제정세의 긴장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응답자 80%는 주요 정치적 불안요소로 중동과 러시아, 이란을 거론하였음.
- 응답자 70%는 이라크와 이란,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더욱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봄.
- 응답자 75%는 유럽연합의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의존도가 높아 향후 3~5년간 잠재적으로 국제정세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우려함.

● 시사점

- 본 설문조사는 세계 주요 에너지기업 CEO들의 향후 에너지시장에 대한 전망을 종합한 것으로, 에너지관련 정책결정시에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응답자의 65%가 향후 5년간 국제유가를 현재와 같은 고유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 것은 현재 국내의 일반적 전망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

(World Energy Council, 2007.6)

2. Energy and Climate Change

● 개요

- The World Energy Council은 향후 온실가스 배출 전망과 주요 요인 분석, 기후변화정책 검토 및 미래 전개방안 등을 다룬 보고서를 '07년 5월 발표하였음.

● 세부내용

- 전 세계 CO₂ 배출추이를 살펴보면, '71년 이후 75%이상 증가하였고, '90년 이후로 보면 20% 증가하여 매년 약 2%씩 증가하였음.
 - 유럽지역 : '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믹스 변화로 CO₂ 배출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국가별로 CO₂ 배출 전망은 다를 수 있음.
 - 북미와 태평양지역 OECD국가 : '71년 이후 50% 상승하였으며, 일인당 배출량이 높은 수준임.
 - 개발도상국 : 동아시아의 급격한 성장에 힘입어 CO₂ 배출도 상당히 증가했지만 일인당 배출량은 낮은 수준임.
 - '71년 이후 CO₂ 배출추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건물부문은 35%, 산업부문 35%, 수송부문 25% 증가를 기록했음.
-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정책 검토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해 제시되는 보편적인 정책은 신재생 에너지와 고효율 설비의 사용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이전 및 보급이 실현되어야 함.
 - 교토메커니즘 이행이나 경제적인 온실가스 배출저감 전략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존재함.
- 기후변화정책의 미래방향
 - '50년까지 선진국의 CO₂ 배출량은 70%(연간 130억 톤) 증가하고 개발도상국은 200%(연간 90억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저탄소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개발 및 보급이 요구되며, 전 세계적인 상호협력으로 각 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해야 함.
- 특히, CO₂ 배출저감을 획기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술로 탄소포집 및 저장기술(CCS)을 들 수 있음.

● 시사점

- 기후변화 대응방안으로 일관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기술개발 및 R&D의 확대, 온실가스 배출감축 정책의 효과의 검토가 요구됨.

(World Energy Council, 2007.5)



연구원 동정

1. 국제회의 참석

- IEEJ 주관 철약잠재량 분석 Working Group 회의 참석 (태국 방콕, 7/9~7/12)
- 미 에너지부 및 펜실바니아아주립대와의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정책 및 평가사례 업무 협의(미국 워싱턴, 펜실베니아, 7/15~7/22)

2. 언론 활동

- 중앙일보 : 중국, 일본의 대 사할린지역 진출 현황과 전략
- KTV, 강지원의 정책데이트 : 여름철 에너지 수급대책
- 파이낸셜뉴스, 한겨레신문 인터뷰 : 하반기 국제유가 전망과 정책 대응 등
- 산업인터넷 TV 인터뷰 : 등유 판매부과금 인하의 의미 등

회원제도안내

구분	제공자료(발행주기)	특기사항
국내 일반 회원 (연회비:50만원)	- Energy Insights (격주간) - 에너지통계월보 (월간) - 에너지 포커스 (분기) - 에너지통계연보 (연간) - 지역에너지통계연보 (연간) - Korea Energy Review Monthly (KERM) (월간) - Energy Info. Korea (연간)	- 우편 발송 배포 -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 주요 학술세미나 및 정책 토론회 초청 - 에너지 및 자원 분야 의문사항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 소개
해외 회원 (연회비:2천달러)	- Korea Energy Review Monthly (KERM) (월간) - Northeast Asia Energy Focus (분기) - Korea Yearbook of Energy Statistics (연간) - Energy Info. Korea (연간) - 기타 영문보고서 (부정기)	해외 우편 발송 배포
국내 포럼 회원 (연회비:1백만원)	- Energy Insights (격주간) - 에너지통계월보 (월간) - 에너지 포커스 (분기) - 에너지수요전망보고서 (분기) - 에너지경제연구 (반기) - 에너지통계연보 (연간) - 정책연구보고서 (연간) - 지역에너지통계연보 (연간) - 국가에너지기본계획보고서 (5년) - 세미나 자료 (부정기) - Korea Energy Review Monthly (KERM) (월간) - Northeast Asia Energy Focus (분기) - Energy Info. Korea (연간)	- 우편 발송 배포 - 에너지경제연구원 인터넷포럼 회원 전용 자료실을 통한 에너지 및 자원 정보 제공 (회원전용 ID 및 Password 부여) -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 주요 학술세미나 및 정책 토론회 초청 - 에너지 및 자원 분야 의문사항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 소개

●가입 문의 : 교육홍보팀 (031-420-2281)회원 제도 안내

